



나성범 “달라진 타격 모습 보여줄 것”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KIA타이거즈 주장 나성범이 베테랑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나성범은 지난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주중 1차전 경기에서 8회말 극적인 동점 솔로포를 터뜨리며 KIA의 5-4 끝내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KIA는 3-0으로 앞서다 8회초 롯데에 4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듯했지만 나성범이 해결사로 나섰다.

8회말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그는 상대 4구째 133km 슬라이더를 건어 올려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 아치를 그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KIA는 9회말 한준수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경기 후 만난 나성범은 당시 홈런 상황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첫 타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루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카운트가 불리했지만 살아남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 “사실 타구가 넘어갈 줄은 몰랐다. 제대로 실린 느낌은 아니었는데 좋은 타구가 나오면서 홈런이 됐다. 정말 기분 좋고 짜릿했다”고 말했다.

이번 홈런은 단순한 한 방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KIA는 직전 주말 잠실에서 LG트윈스에 스윙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였다. 앞서 6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흐름이 끊긴 만큼 주중 첫 경기 결과가 중요했다.

나성범은 “고척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분위기를 타고 잠실에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 전체적으로 타격이 잘 안 풀렸다”며 “우리가 하던 야구를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하루 쉬면서 재정비했고 좋은 경기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주중 1차전 8회 동점포로 역전승 발판 마련 “안타·홈런 등 상관없어…후배 챙기는 것도 역할”

사실 나성범에게 올해는 중요한 시즌이다. 2027시즌을 끝으로 FA 계약이 종료될뿐더러, 최근 몇 년간 부상 악령에 시달렸다. 종아리와 햄스트링 부상 등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올 시즌은 다르다. 3일 경기 전 기준 KIA가 치른 55경기 가운데 51경기에 출전하며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자신의 성격에 욕심이 더 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랜 부상 경험은 여전히 몸에 남아 있다.

나성범은 “예전에는 뭘 때 부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부상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 이제는 햄스트링이나 종아리를 계속 신경 쓰게 된다”며 “베이스러닝을 할 때 도 무릎과 하체 움직임을 의식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주력을 100%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고, 한 베이스 더 갈 수 있는데 찰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팀 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크다.

나성범은 “후배들한테도 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아픈 모습만 보여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그의 후배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 그가 가장 눈여겨보는 선수는 올 시즌 KIA 들풍의 주역으로 성장한 박재현이다.

나성범은 “(박)재현이는 앞으로 KIA를 이끌어갈 외야수 중 한 명이다. 후배들이 자리를 잡아 앞으로 들어올 선수들에게도 경험을 전해줄 수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가 후배들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현이는 속도 안 하고 몸 관리도 정말 철저하게 한다”며 “에이트레이닝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시즌 끝나면 스프링캠프 때 한 번 제대로 데리고 해볼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올 시즌 성적에 대한 아쉬움 또한 숨기지 않았다. 나성범은 “욕심이 많다 보니 올해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날 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다. 홈런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안타든 홈런이든 불빛이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 체육, 단체구기종목 국비 확보 성과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2026년 단체구기종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유소년 체육 육성과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정 스포츠클럽 단체구기종목 지원사업’ 가운데 지역교류전 분야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정 스포츠클럽을 비롯해 학교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사설클럽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단체구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광주에서는 농구와 핸드볼 종목이 선정돼 오는 10월부터 12월 사이 지역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5000만원·전남 3억원 확보·유소년 육성 타력 교류전·집중 훈련·영재 발굴 추진, 스포츠클럽 강화

교류전에는 전국 각지의 초·중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체육회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스포츠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회와 함께 전직 스포츠스타가 참여하는 전술 강의와 원포인트 레슨도 운영해 참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우수 인재 조기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시체육회장은 “지정 스포츠클럽 학생들과 학교운동부 선수,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현장에서 배우는 산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교류 대회로 발전시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도체육회 역시 같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고 규모인 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은 집중훈련캠프, 영재발굴 프로젝트, 지역교류전 지원 등 3개 분야에 선정되며 유소년 선수 육성과 스포츠클럽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집중훈련캠프 분야에서는 목포 스포츠클럽과 순천 스포츠클럽이 각각 선정돼 축구 종목에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전국 163개 지정 스포츠클럽 가운데 단 10개 팀만 선정되는 사업에 전남에서 2개 팀이 이름을 올리며 우수한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영재발굴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총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청자 FC와 보성 스포츠클럽이 축구 종목으로 각각 2000만원, 영암군 스포츠클럽이 야구 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으며 도체육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9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주 발굴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교류전 지원 분야에서는 강진군체육회와 화순군체육회가 각각 2500만원을 확보해 총 5000만원 규모의 교류전을 추진한다.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사설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를 통해 경기력 향상과 지역 단체구기종목의 상생 발전이 기대된다.

전남체육회는 이번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만 스포츠클럽 관련 국비 20억7700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지정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47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15억9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2026년 단체구기종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유소년 체육 육성과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은 전남 축구 집중훈련 캠프 모습.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황동하 3이닝 5실점’…KIA, 롯데에 3-8 패

4회초 강판…팀 실책 3개 기록 김도영, 솔로 홈런 ‘시즌 15호’

KIA타이거즈가 투타 모두 부진하며 패배했다. KIA는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주중 2차전 경기에서 3-8로 패배했다.

이날 마운드는 상대 타선을 상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타선 역시 실책 3개와 함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무너졌다. 그 결과 29승 1무 26패로 승률 0.527을 기록, 리그 4위 자리는 유지했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아테롤린(1루수)-김도영(3루수)-나성범(우익수)-김선민(지명타자)-한준수(포수)-김호령(중견수)-박민(유격수)-김규성(2루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황동하가 나섰다. 총 69개의 공을 던진 황동하는 3이닝 6피안타(1피홈런) 3사구 2탈삼진 5실점(4자책)으로 부진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5km였다.

황동하는 1회초 상대 선두타자 황성빈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한준수의 도루 견제가 뒤로 빠지면서 황성빈에게 3루 베이스를 내줬다. 후속



황동하

2회초에도 실점이 나왔다. 상대 첫 타자 한태양에게 좌중간 안타를 허용했다. 조세진 삼진 이후에는 손성빈에게 볼넷을 내줬다.

후속타자 김세민은 삼진으로 처리했으나, 황성빈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줬다. 위기는 계속됐다. 고승민에게 볼넷을 기록하면서 2사 만루에 몰렸다. 황동하는 레이에스에게도 밀어내기 볼넷을 기록했다. 경기는 0-3으로 벌어졌다.

KIA는 2회말 추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나성범이 우전 안타를 때려냈다. 김선

빈 볼넷 이후 타석에 오른 한준수는 1타점 적시타를 터트렸다.

하지만 3회초 또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상대 손호영을 평범한 내야 뜬공으로 잡아내는 듯했으나, 포수 포구 실책으로 출루를 허용했다. 한태양 뜬공 이후에는 한준수가 손호영의 도루 저지에 성공했다. 이어 황동하가 상대 조세진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1-4가 됐다.

3회말에는 김도영이 추가점을 보냈다. 2사 상황 타석에 오른 김도영은 상대 초구 148km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시즌 15호포.

황동하는 4회초 김세민에게 좌전 안타를 맞으면서 결국 강판됐다. 마운드는 박도규가 이어받았다. 박도규는 실책성 플레이를 쏟아내면서 상대에게 1점을 헌납했다.

KIA는 7회말 격차를 좁혔다. 선두타자 한준수가 안타를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후속타자 김호령은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적시 2루타를 폭발시켰다.

KIA는 8회초 1실점, 9회초 2실점을 각각 쏟아낸 뒤 9회말 득점에 실패하면서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보성서 현충일 맞이 ‘아리랑 기공 대축제’ 열린다

6일 전남국학원·홍암나철기념사업회 공동 개최 홍암 나철 선생 나라사랑 정신 기리는 시간 마련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전남 보성에서 홍암 나철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전남국학원과 홍암나철기념사업회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보성군 별교읍 홍암나철기념관에서 ‘아리랑 기공 대축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적 상징인 아리랑 기공을 함께 수련하며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홍암 나철 선생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보성군수 측사와 함께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대한국학기공협회 중앙교육원 이종화 원장이 참

여해 ‘아리랑 기공 12수’를 참가자들에게 직접 전수한다.

식전 공연도 마련되며, 홍암 나철 선생의 삶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 홍암나철기념관 투어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나라를 잃은 시대에 민족이 어떤 정신으로 다 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박은애 홍암나철기념사업회장은 “국학원과 함께 홍암 나철 대종사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온 결과,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9월의 문화인물 선정과 2016년 홍암나철기념관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한민족의 선도문화와 단군의 흥

익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강태수 전남국학원장은 “홍암 나철 선생은 유학자에서 단군 정신의 맥을 잇고 선도문화를 증광한 인물”이라며 “아리랑 기공을 통해 한민족의 밝은 선도문화가 이념 대립을 넘어 인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국학원은 1988년 전신인 사단법인 한문화원 설립 이후 한민족 고유의 ‘흥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복원하고, 전통문화 속 전지인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암나철기념사업회도 흥익 철학 교육, 나철 묘소 참배, 홍암나철기념관 건립제안 등 홍암 나철 선생의 정신 계승과 민족정신 선양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